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 聞

발행인 高長權 주 간 文忠誠

부주 간 高榮哲 편집장 金鍾燮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1번지

전화: (직) 54-2278·2279

인쇄: 한라일보사

제484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3년 9월 21일 화요일

1

‘조직변화를 위한 관리’로 전환촉구

지난 17일 제4대 총장취임연설서 강조

과거 잘못된점 과감히 수정 보완

‘제4대총장 고장권박사 취임식’이 지난 9월17일 오전11시 현명효·김형욱전임총장, 우근민 제주도지사, 김창진 총동창회장, 김수곤 전북대총장을 비롯 교수·학생·교직원 등 각계 인사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대 중강당에서 거행됐다.

이날 취임식은 국민의례, 고장권 박사 약력소개, 꽃다발증정, 취임사, 축사(김창진 총동창회장, 우근민 제주도지사, 김수곤 전북대총장) 등의 순으로 약 1시간동안 진행됐다.

고장권 신임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도 대학들도 진리의 탐구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작업에 더욱 매진해야 할 때”라고 전제한 후 “미래를 향한 대학으로 가는 길은 ‘질적 도약의 길’이라며 이를 위해 ‘과거의 좋은 점은 더욱 계승·발전시키고 부족했던 점이나 잘못된 점은 과감히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주춧돌을 하나하나 쌓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총장은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와 정책집행과정의 정당성

第四代總長 高長權 博士 就任式



◇‘제4대 총장 고장권박사 취임식’이 지난 17일 법정대 중강당에서 김형욱 전임총장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으로 다수의 합의에 기초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며 우리대학의 질적 도약을 위해 ‘조직유지를 위한 관리’보다는 ‘조직변화를 위한 관리’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취임식이 끝난 후 후속행사로 기념촬영과 리셉션이 있었다. 신임 고장권총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1935년 경남출생
△1962년 부산수산대학 졸업
△1968년 우리대학 수산학부 전임강사
△1970년 수산학부 조교수승진
△1978년 # 부교수승진
△1982년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1983년 수산학부 교수로 승진
△1979~80년 우리대학 수산학부 부장
△1985~89년 이공대학장
△1986년 경상대학교 대학원 농학박사
△1990~92년 공과대학부속 산업기술연구소장.

학생회관 공동생활수칙 마련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협력키로
‘생활자치위원회 구성 준비회의’에서

‘학생회관 생활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가 후생과(과장 박문웅)주최로 지난 9월17일 오후3시, 문도길 학생처장, 박문웅 후생과장, 오영훈 총학생회장을 비롯 각 동아리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회관 시청각실에서 열려 신축학생회관 생활수칙(가안)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박문웅후생과장은 이날 회의취지에 대해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학생회관은 우리들 스스로가 인격을 도야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려는 시설로써, 이곳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우선 교내의 윤리관이 확립되어야 하겠고 모범된 자기양식의 확립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모임은 이러한 것들을 공동수칙으로 만들어 보다 알차고, 값진 학내생활을 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신축학생회관 생활수칙에 대해 대략 논의된 사항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물을 파손하지 않는다.(파손시 파손자가 부담) △현관이나 복도 및 공동의 공간에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 △화장실 배수구 및 세면대에 오물을 버리지 않는다 △화장실 및 기타벽에 낙서금지 △신축학생회관 내에서 고성방가를 금한다 △종물이나 악기연주는 다른 학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연습 한다 △벽보는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축학생회관내에서는 평상시 슬리퍼를 신고 활동하지 않는다(오전 9시~오후6시) △차치기구 및 동아리방 분실

물이 없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데 모두가 협력을 한다 △화재예방과 에너지절약에 힘쓴다.

한편, 신축학생회관 생활자치위원회 임시위원장은 장인철 부총학생회장이 추대됐으며 당초 계획했던 임원구성에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장인철 임시위원장은 “앞으로 신축학생회관 생활수칙에 제재기준등을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면서 “생활수칙 지키기에 학우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공직설명회 개최

학생생활연구소(소장 허철수 교수)에서는 9월21일 오후2시 자연과학대학세미나실에서 ‘공직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동국(총무처 인사기획과, 행정사무관)씨가 연사로 나선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무원이 일반 사기업체직원들과 다른점, 공무원시험일정, 시험대책등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흔들하르방 부끄러운 추종

조선 태조 이성계가 개국 후 정초전·정종 등에 명하여 편찬한 『고려사』 첫부분의 고려왕조성립에 관한 설화중에 ‘居此, 必大唐天子來作婿’란 문장이있다. 이는 건국에 이르기까지 고려 태조 왕건과 그 선조들에 관한 설화중 당 속종의 아들과 결혼한 ‘진위’라는 여자에 대한 일화를 기술한 부분의 한 문장이다. 즉 이 문장은 ‘이곳에 거주하면 반드시 대당나라 천자가 와서 사위가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단 『고려사』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책들 속에는 당나라를 칭할 때 ‘대당(大唐)’이라는 표현을 쓴다. 당나라를 ‘당(唐)’이라 하지 않고 역사서에까지 ‘대(大)’라는 수식어를 붙여 ‘대당’이라 표현함은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국의 입김속에 숨죽여 살았는지 가히 짐작할만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대(事大)는 요즘의 세태를 살펴볼 때 결코 옛날의 일만은 아닌 듯 싶다.

지난 9월18일, 서울에 미국 캘리포니아 샌주립대학 서울분교라는 엉터리학교를 설치한 뒤 학사 및 석사과정에 1백37명을 등록시키고 입학금과 등록금이 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재미

동포 2명이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91년 5월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올해말까지 시한부 통신폭박기판으로 인가받은 샌주립대학에 학·석사과정의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국내대학교재를 나눠준 뒤 1주일에 2차례씩 2시간 강의를 하고 10개월만에 졸업시키는 등 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다. 구속된 재미교포 2명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대 의식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면 아무리 대학 분교라지만 학·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겨우 10개월 동안의 교육만을 받고 영문학위증을 받으려고 1백37명씩이나 찾아가 아무 의심없이 등록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같은 사실은 아무리 질적으로 떨어진 곳이라도 ‘미국’에서 발급한 학위를 받아야만 국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풍조가 팽배해져 우리사회의 의식구조에서부터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을 두고 학문 하려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이들엔 ‘미국’은 그냥 ‘미국’일 수 없다.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은 기꺼이 ‘위대한 미국’이라고 책에까지 쓸 수 있을 것이다.

국문학자 조동일교수는 최근에 펴낸 그의 저서 『우리 학문의 길』에서 “학문의 수입업자나 하청업자 노릇을 하면서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요즈음 유행하는 문자로 국제경쟁력을 가진 자기 상품의 제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생각이 깨인 다른 모든 나라에서 함께 채택하고 있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노선”이라고 쓰고 있다. 조교수는 여기에서 학문의 사대성 즉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야만이 진정한 학문을 배운 것인 양 치부되는 우리 사회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두가 고려시대에서 지금까지 무엇이 변했는가? 다만 사대의 대상만이 바뀐 것은 아닐까.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2천년대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할, 그리고 학문의 길을 개척해야 할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란 누구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창조해 나가는 것임을 바로 인식할 때 미국 등 강대국에 대한 부끄러운 추종은 비로소 사라질 것이다. [池]

연회비 납부 협조요청

총동창회, 2만 동문에게 서간문 발송

동문의 대다수가 총동창회(회장 김창진 법학과 1회졸)의 연회비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대학 총동창회 연회비 수입액은 1천3백5만원이었으나 밝혀졌는데 이 금액은 총 동문 1만8천9백60명중 1.96%에 해당하는 3백71명이 납부한 것이다.

현재 동창회연회비 수입의 대부분은 동창회 회보 『제대교우』의 인쇄·발송, 주소 파악 작업에 소요되고 있는데 회비 납부율이 저조하여 그나마 1달에 1번 발간하던 회보를 2달에 1번밖에 발간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93년도 총동창회 연회비 납부현황을 보면 임원진 32명, 일

반회원 1만79명, 신입회원 5백40명 등 모두 7백51명이 8백5만7천8백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동창회비 납부금액은 회장 2백만원, 부회장 1백만원, 운영상임이사 30만원, 지도위원 20만원, 감사 20만원, 이사(상임이사) 6만원, 일반회원 1만원, 신입회원 5천원이다.

한편, 총동창회에서는 지난 9월 초순경 1만5천여명의 연회비 미납 동문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회비를 납부해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의 서간문을 발송했다. 이 서간문에는 총동창회가 현재 어떤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으며 총동창회 연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있다.

축 제주대학교 제4대 고장권총장 취임

우리의 농촌과 농업을 지키려는
농협의 의지는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농촌을 돕는 「농협저축」은
농촌에는 기쁨을,
가정에는 안정을,
기업에는 희망을,
모든 고객에는 만족을 드립니다.

우리땅, 우리것을 소중히 여기는
정다운 농협으로 오십시오.
농협은 다른은행과 다릅니다.



농협은 모든 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농협 예금을 자원으로
농민
기업

가계의 필요한 자금과
농산물 유통자금으로
도내에서 조달한 예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중앙에서
지원받아 도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농촌 저축은 농협
농협중앙회제주도지회

제4대 총장 취임사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 교직원, 학생 여러분! 오늘 취임식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취임식장인 이 자리가 우리 대학교를 더욱 발전된 단계로 도약시키기 위한 출발점이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대학교는 지난 40년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역대 학·총장님들과 교수, 교직원, 동문, 재학생 그리고 재주도민 전체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은 이제 더욱 승화된 차원에서, 그리고 한층 더 단합된 힘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결집되어야 할 것입니다.

8·15광복이후 한국사회는 그 이전의 수 백년 동안보다도 급격히, 그리고 근본적이라고 할만한 변화를 경험하여 왔습니다.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로 세계가 동·서양국 체제로 분리되고, 대학을 위시한 교육 전반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 인격의 형성과 진리의 탐구보다는 반공에 투철한 이데올로기의 훈련장이 되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에는 경제성장이 최우선적 발전가치로 되면서 대학은 기능인의 양성소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에는 과정이나 수단의 정당성보다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목표달성만이 강조됨으로써 대학도 합리성이 결여된 시대조류에 휩쓸려 있었습니니다. 80년대에 외서는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에 고착되고, 국가통합이라는 통치이념하에 대학은 자율성의 상실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80년대 후반은 민주화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사회의 여러 집단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본격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흡수하여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매커니즘의 부재로 이 이해관계의 표출은 발전을 위한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혼란 또는 무질서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학도 혼란과 무질서를 경험하면서 연구와 교육보다는 '위기 관리'에 급급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짧은 반세기 동안 대학은 때로는 평정을 강요받고, 때로는 자발적으로 동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도 하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이데올로기 경쟁이나 군사경쟁보다 정보나 문화의 경쟁, 그리고 더욱 치열해진 경제경쟁으로 돌입하고 있고 이제 신한국사회는 목표달성 자체보다는 그

과정과 수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개혁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물론, 조직속에서의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강조되는 합리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대학들도 진리의 탐구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작업에 더욱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향한 대학으로 가는 길을 저는 '질적 도약'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질적 도약을 위해 우리는 그 첫번째로 무엇보다도 대학이 담당하고 있는 본래의 기능인 연구, 교육 봉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좋은 점을 더욱 계승·발전시키고 부족하였던 점이나 잘못되었던 점은 과감히 수정·보완하고, 나아가서는 단단한 새로운 주춧돌을 하나 하나 쌓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저는 교육연구시설을 확충하고, 교수 연구활동 기금을 조성하며, 동창회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함은 물론, 연구와 교육의 능률과 효율을 위한 방향으로 행정을 개혁함으로써 우리 대학교의 질적 도약을 위한 토대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보직교수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힘을 모으는 것은 학내 구성원들의 다수의 의견이 정책결정의 중심체계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정책은 다수의 합의에 기초한 정책이 될 것이며, 일단 합의된 정책은 소수의 목소리에 좌우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화이고, 정책집행 과정의 정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교수, 교직원, 학생이라는 이질적인 3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직체들과는 달리 이들 세 집단은 각기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는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위해 '전문적 자율성'을 중시하고, 교직원은 조직목표의 능률적 달성과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하면서 공식적 규정이나 법규에 지나치게 얽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학생들은 조직의 목표달성이나 발전보다는 자신들의 학업과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위한 '개인적 유용성'을 행동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수, 교직원, 학생간에 긴장과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세 집단은 상하의 수직관계가 아닙니다. 긴장과 갈등만이 있어야 하는 관계는 더욱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져야 할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간의 대화의 촉진, 인간관계의 개선도 대학발전의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입니다.

대학은 사회에 대해서는 개혁을 외치면서 대학자체에 대해서는 현상유지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대학 내에 개혁을 장애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학이 우리들이 담고 있는 하나의 전체라는 생각보다는 교수개인, 학과, 단과대학, 학문분야 사이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이기적인 이익추구가 아마 그 주요 장애요인일 것입니다. 대학의 개혁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동창회, 학부도, 지역사회 등 대학 밖의 환경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이제 질적 도약을 위해 '조직유지를 위한 관리'보다는 '조직변화를 위한 관리'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면 우리 대학교는 앞으로 제2단계, 제3단계의 질적 도약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변화의 촉진자로서 재임기간 동안 이를 위한 하나의 단단한 다짐들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9월 17일

總長 高長權

어떤 조직에 있어서나 그 조직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은 어려운 문제다. 이 문제는 조직이 크면 클수록 더 힘들어진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대표 선출의 문제를 대부분 '투표행위'라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여러 투표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이 투표라는 대표선출방식에는 한계가 있어 여러 문제점들이 내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투표라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그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민주적이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 없다.

어느 조직에서든 그 대표가 선출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의견이 결집·반영된 결과로 나타난다. 비록 학생회칙에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 확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무투표 당선이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형식'에 초점을 맞춘 반쪽당선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투표라는 행위는 그 결과로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출마후보의 공약을 검토·비판한다는가 사 업능력을 평가하는 등의 다양

가하며 "34점짜리 대통령"이라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 자신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대표의 지지율이 0%인가 아니면 100%인가. 물론 지지율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율을 높여나가는 과정에서 그 방법이 정당하다면 그 조직을 더욱 탄탄하게 해 나가는 것도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 추구해야 할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무투표당선으로 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회칙이 무투표 당선이라는 규정으로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무투표 당선은 그간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단독출마시에 무투표 당선 토록 할 것이 아니라 출마후보의 신임여부를 묻는 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 단독출마의 경우라도 일정정도의 지지율을 얻어야만 당선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회칙 또는 선거 시행세

◇학생회칙 개정 작업에 부쳐

‘무투표 당선’ 조항 반드시 삭제해야

우리대학에서도 총학생회장 등 각 학생자치기구장 선출에 있어 투표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대부분의 자치기구장들이 단독출마로 무투표 당선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의 경우 12개자치기구 중에서 법정대·농과대 학생회를 제외한 10개의 자치기구장이 무투표 당선됐으며, 특히 총학생회장은 2년 연속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러한 무투표 당선과 관련 하여 우리는 회칙 혹은 시행세칙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한 방법으로 그 조직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시행세칙중 무투표 당선을 허용한 부분은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음, 무투표 당선자의 지지기반이 불명확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간파할 수 없다.

과거 87년 대선 당시 34%의 지지율로 당선된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우리들은 "34%의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이 진정한 대통령인가"라는 등의 비판을

미암아 일반학우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신임여부도 묻지 않음으로써 학생자치기구와 학우들간의 거리감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곧 학생회역량의 약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우들의 권리보호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학생회칙의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는 학우들의 권익과 의무를 규정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대표를 우리의 손으로 뽑는 것'은 신성한 학우들의 권리일

칙상에 명시해야 한다.

최근 총학생회장의 발의로 대의원회에서 회칙개정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생회칙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작업중에는 학생회칙만이 아니라 선거시행세칙 개정에도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 하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학생회칙에서 "단독출마시 무투표 당선"이라는 조항은 완전히 삭제하고그대신 전체적인 학우들의 신임을 묻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마땅함을 주장한다.

(박병준 기자)



박사학위 취득

▲김규웅(과학교육과)부교수=지난 8월20일 경남대학교대학원에서 "태양광 필름에 의한 Nd³⁺이온이첨가된 결정 레이저의 비고 연구"라는 논문으로 이학박사 학위 취득.

▲방은숙(수학과)부교수=지난 8월17일 서강대학교대학원에서 "Approximation of Surfaces of Minimum Lebesgue Area" 논문으로 이학박사 학위 취득.

▲안기중(정보공학과)조교수=지난 8월20일 연세대학교대학원에서 "과피코한 음성/태이타 다중 네트워크의 성능 개선"이라는 논문으로 공학박사 학위 취득.

| 교수동정

▲안영화(해양대 실습과장·어업학과)부교수=지난 9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습선

아라호(9백90톤급)잔여 공사 확인·점검과 교육부 외자 사업 문제 협의 위해 부산 대동조선소와 교육부 방문.

▲허목(해양환경공학과)부교수, 오윤근(〃)부교수, 이기호(〃)조교수, 감상규(〃)조교수, 이용두(〃)전임강사=지난 9월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한국과학기술회 주최로 대전 엑스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폐기물처리 기술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

▲허종철(기계공학과)부교수=지난 9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한양대에서 열린 '한국액체 미립화 연구회 학술강연회'에 참석.

| 학과동정

진의제

사회학과 측제인 '진의제'가 과학생회(회장 고종수 3)주최로 오는 9월22일과 23일 양일

간 인문대 세미나실 등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의 일정을 보면 22일에는 △영화상영(호과, 인문대 세미나실) △토론회(신세대에 관하여, 인문대 세미나실) △민중의 생 노래발표(인문대 세미나실)가 있으며 23일에는 △체육대회(소운동장) △진지의 밤(재주겨루기 대회, 춘곡, 모락불놀이-옴팡방)등이다.

임실 선발고사 실시
고시반 관리 운영위서

법정대학 고시반 관리·운영위원회(지도교수 권영호 법학과 전임강사)에서는 '93학년도 제2학기 고시반 입실 선발고사'를 오는 9월25일 10시 법정대 남학우들을 대상으로 2108 강의실에서 실시한다.

필수 2과목(영어, 헌법), 선택 1과목(민법총칙, 행정학, 행정법등) 등 총 3과목의 시험을 치르는 이번 선발고사에 응시하려는 학우들은 각학과 사무실 또는 법정대 교무과에서 교무하는 원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 오는 24일까지 반명함판 사진 1매와 함께 법정대학 교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독문학의 세계

독어독문학과 과총제인 '독문학의 세계'가 과학생회(회장 김미성 3)주최로 오는 9월24일, 25일 양일간 열린다.

이번 축제기간에는 24일에 △분과별 학술발표회(인문대 세미나실) △전시회(시, 서예, 그림, 자수등, 8117)가 열리며, 25일에는 △사물놀이 △탈춤 △연극 △노래 발표회등의 행사가 법정대 중앙당에서 개최된다.

분재전시

학생회관 2층 로비

분재연구회(회장 현은봉 측산과 3)창립11주년기념 제12회 작품전시회가 오는 9월23일, 24일 양일간 신축학생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분재' 'Dish Garden' 'Terrarium' 'Hanging'종류 등 다수의 작품이 전시된다.

『혁신대의원』3호 발간

총대의원회(의장 김병찬 해양환경공 4)회보 『혁신대의원』 제3호가 지난 9월 20일 발간됐다.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HYUNDAI

기술로 세계와 승부한다

현대는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세계의 일류 기업들과 당당히 승부하기 위해 첨단기술 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현대가 만드는 반도체, 자동차, 자기부상열차, LNG선은 세계의 초일류 기술제품으로서 기술한국의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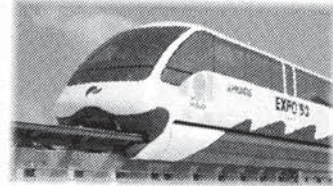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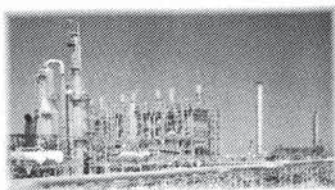


최근, 1MD램을 개발한지 불과 4년만에 64MD램 개발에 성공한 것을 비롯, 차세대 반도체 256MD램 개발에 착수하는 등 현대는 세계반도체산업과 정보통신산업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6년 국내 최초로 미국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이래, 세계시장의 호평을 받은 현대는 순수 우리 기술로 첨단 미래형 스포츠카인 HCD-II를 개발, 미래의 자동차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1세기산업을 주도할 정밀화학, 고분자 신소재분야 주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육성하고 있는 정유·화학부문의 대단위 공장을 건립, 현대는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여년 동안 세계의 선도적 조선업체로서, 세계 최대의 유조선선을 비롯하여 530여척의 선박을 건조한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는 최근 선박 기술의 꽃이라 불리는 LNG선을 건조하여 그 명성과 기술력을 다시한번 과시했습니다.

첨단반도체에서 LNG선까지— 현대는 품질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보다는 미래건설에 앞장서했습니다.



▲現代

총학 하반기 사업계획 발표 대학발전기금 모금운동 방법 등

총운영위, 대학상 재정립 등 위한 결의문 채택

총운영위원회(이하 총운영위) 회의에서는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4·3진상규명 투쟁방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총학생회(회장 오영훈 경영4) 주최로 열린 이번 93년 하반기 정기 총운영위에서는 △하반기 조직사업 및 일상사업 △학원자주화 사업 △4·3진상규명 투쟁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는데, 먼저 상반기 사업결과를 간단히 평가한 후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해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키로 결정한 하반기 조직사업으로는 △모범단위 및 간부 발굴 전과 사업, 학원자주화사업으로는 △대학발전협의회(이하 대발협) 토대마련 △등록금 투쟁준비 △대학발전기금 모금운동 등이 각각 확정됐다.

모범단위 및 간부 발굴·전과 사업은 모범이 될만한 분임조, 분과·소모임, 집행단위, 운영 및 지도단위와 같은 생활단위나 간부를 찾아내어 학원들에게 소개하는 사업으로, 추진(10월4~8일) 조사(10월11~22일)의 과정을 거친 후 학생의 날(11월3일) 행사 때 시상식을 갖기로 했다.

총운영위에서는 또한 학원자주화 사업의 하나인 대발협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대발협의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고, 우리대학 실정에 알맞는 대발협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모임을 안착화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발협 토대마련과 함께 추진될 등록금 투쟁준비는 △설문지 조사를 통해 등록금에 대한 학원들의 의식 파악(10월말) △협의모임이나 기타 조직 체계에 자료제출 요구(11월초) △차기 학생회와 등록금 투쟁의 방향 및 내용설정(11월말)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학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발전기금 모금운동'에는 각 단대추진기간에 맞춰 열리는 주점·분식점 같은 각종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금의 5%를 발전기금으로 기탁하는 방법으로 참여해나갈 방침이다.

4·3진상규명 투쟁은 국내외 4·3특별위원회 건설을 최대의 목표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차시기(9월13일~28일)에는 4·3진상규명 투쟁의 결의 및 학내서명운동을 벌이고 △2차시기(10월4일~11월3일)에는 국내외 4·3특위 건설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본격화하면서 국회청원투쟁을 전개시켜 나가기로 했다.

기타안건으로는 재입학생 등록금납부, 학생회관 자치운영 기구설치, 회칙개정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이번에 재입학된 복학생들이 입학금 전액을 납부하는 문제

는 부담하기는 하지만 교육부의 일괄적인 지침이므로 납부 거부 등의 실행행사를 하기보다는 차후에 중앙운영위에서 등록금 사용내역을 조사하고 학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학생회관 자치운영기구 설치에는 중앙운영위에서 동아리인을 중심으로 학원들을 모집해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회칙개정 문제는 일단 대의원의 회칙개정소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또한 가사후학도 입영후학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안건도 제기됐는데, 이는 차후에 결산협의회(의장 정창현 공과대학생회장 정보공4)에서 논의한 후 학교측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에 대한 토의가 끝난 후 운영위원회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생활·학문·투쟁의 자주적 학생회의 기치를 분명히 함과 아울러 94년 학생회 건설사업의 토대마련에 노력하며 △4·3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내외 특별위원회 건설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며 △학원자주화 투쟁의 최대성과목표인 협의모임을 안착화시켜 대발협의 토대를 마련하고 올바른 대학상 정립의 모태를 제시하는 생활수칙 제정과 준수수칙을 통해 학원들과 함께하는 학생회를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제총협은 지난 9월17일 학생회관 로비에서 '국회 4·3특위 설치'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4·3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등 촉구

제총협 지난17일 기자회견 통해

제주지역총학생협의회(상임의장 오영훈 경영4)에서는 지난 9월17일 학생회관로비에서 정기국회를 바라보는 제총협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제총협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회내에 '4·

3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칭) 설치 및 '4·3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국정감사 TV생중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국정감사 증인출석, △남북합의서 국회동의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총협은 "4·3에 대한 왜곡된 역사규정이 지역발전에 장애를 초래했으며, 주민들간 상호불신과 피해의식을 야기시켜 공동체문화형성에 장애가 돼왔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때에 4·3진상규명을 위한 법적·제도적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제총협에서는 오는 10월8일까지 약3주간 4·3진상규명을 위한 5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이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총협에서는 지난18일 시내 중앙로 주력은행 앞에서 40여명의 학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4·3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정기선전전을 벌이고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했다.

구학생회관 이용방안 확정 2층,대학원 및 6개 연구소 등 사용

사무실 이전 일정은 내부시설 변경후 결정

신속학생회관 준공으로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방과 후생시설 등이 신속학생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학생회관과 본관 일부 공간이용방안이 조정된다.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공간활용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한 이번 구학생회관 공간조정과

사무실 재배치 계획의 주요내용은 △박물관 및 전자계산소 공간을 확장하고 △제대신문사를 구학생회관으로 옮겨 언론3사를 집중배치하며 △대학원 및 분부차원연구소를 구학생회관으로 이전, 집중 배치함으로써 연구소의 행정실을 통합운영하며 △업무수행상의 효율성을 고려해 본부의 일부 사무실을 이전·재배치한다는 것 등이다.

재배치되는 기관 및 부서는 △본부부서인 학생과, 기획연구실, 장학담당관실, 수업과, 시설과 △본부 직할연구소인 학생생활연구소, 탐라문화연구소, 지역사학발전연구소, 동아시아연구소, 관광산업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환경연구소 △부속기관인 박물관, 전자계산소, 제대신문사, 영자신문사, 기성회노조사무실, 관리실, 출판부, 예비군연대 △의무기관인 우체국, 동창회사무실 등이다.

공간재배치 조정상황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종전의 사무실)

▲구학생회관인 경우 △1층=관리실(서점자리), 교직원 식당(학생식당) △2층=대학원(휴게실·동아리방), 6개 연구소(여학생휴게실·동아리·우체국), 출판부(동아리방), 동

창회사무실(동아리방) △3층=제대신문사(총학 사무실), 학생생활연구소(동아리방), 교육방송국(기존), 영자신문사(여학·인복회사무실)

▲본관 △1층=장학담당관실(학생과) 연구지원담당관실(후생과), 수업과(장학담당관실) △2층=기획담당관실(수업과, 연구지원담당관실) △3층=전자계산소(전체) 예비군 연대(양호실), 기성회노조 사무실(양호실 맞은 편)

▲본관서쪽 △1층=학생과(시설과), 시설과(박물관) △2층=박물관(대학원), 기획담당관실 △3층·4층=박물관(박물관)

이번에 구학생회관과 본관서쪽건물의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건물명칭 또한 구학생회관은 '대학원'으로, 본관서쪽건물은 '박물관'으로 각각 개칭된다.

한편, 사무실 이전일정등은 기성회 추경예산을 통해 공사예산액이 잡혀야 내부시설변경공사가 이뤄져 확실시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라여성』 19호에 북한학생편지 실려

『아라여성』19호가 지난 9월

社說

50억 조성방안 제시를

고장권 교수의 제4대 총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전제대 가족과 더불어 힘찬 박수를 보낸다.

후보 등록 이전부터 결선 투표까지 노심초사했음을 잘 알고 있기에, 본인 스스로도 영광과 함께 그 책임이 막중함을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취임식장에서의 떨림은 불안해서가 아니라, 놀라내리는 책임감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제대 가족들은 느끼고 있다. '대학의 질적발전을 추구'하고 '변화의 촉진자'로서의 확고(確乎)한 입장을 밝히고 출발했기에 구성원들은 많은 성원을 보낼 것이다. 아니 그런 자세가 서 있다. 발전에 혼신의 힘을 쏟는데 눈을 다른 데로 돌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성원을 받는 길이요, 발전의 깃발을 세우는 계기가 된다.

우리들은 우리대학 발전의 기틀을 세우는 최상의 일이 소견 발표시 공약한 '50억 발전기금 조성'에 달했다고 본다. 50억 조성에 자신감을 표방했기에 1순위가 되었고, 오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 것이다. 이제 제대 가족은 발전기금 50억 조성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빠른 시일안에 해줄 것을 바란다. 희망사항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요구는 이른바 나무 위에 울러놓고 흔들리는 심사는 결코 아니다. 우리들은 전임 총장이 재임 기간 동안 8억여원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진실된 공약임을 확인하자는 것밖에 없다. 나아가 그 실천 방안이 총장 혼자 힘으로 버거운 것이냐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에 적극 참여하자는 의도도 깔려 있다. 앞에서 성원의 자세를 운위했던 것도 이를 염두에 둔 이야기이다.

'50억 조성'이라는 뜬 구름 잡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세밀하게 짜여진 실천 방안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착오가 생기기도 하는 법인데, 그저 막연하게 50억을 조성해 놓겠다는 것은 곤란하다.

대학 구성원들을 일어서게 하고, 동창회의 도움을 받고, 도민의 호응, 나아가 제대를 아끼는 사람들의 협조를 받으려면 당당 이에 합당한 구체적인 방안이 서야 한다. 그 방안 제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가급 들려오는 발전기금 조성에 따른 모종의 방안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실행제 이전의 방안이라면 당연히 궤도 수정이 있어야 한다. 몇 사람에 의해 그 큰 금액이 마련될 가능성은 적어보이기 때문이다. 몇 사람이 아닌, 다수에 의해서 조성되려면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어야 하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한창 한창 벽돌이 쌓여 하나의 보금자리인 집이 완성된다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진리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총장 혼자 조성하기에는 분명 용이한 일은 아니다. 공약으로 표명되시기까지 심사숙고한 결과이기도 한 하겠지만 실천의 문제이지 결코 사고하는 것만으로 그칠 일은 아니다. 방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조용한 다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빠른 시일안에 방안 제시가 있기를 바란다.

축하와 아울러 이같은 요구 사항을 제시한 것은 신임 총장에 대한 우리의 애정의 표현에 다름아니며, '운변하는 소수'도 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20일 총학생회(회장 김란영 화학4)에서 발간됐다.

타블로이드판 4면으로 발간된 이번호에는 △정신대문제를 다룬 '조선 딸들의 수난', △아내구타에 대한 원인, 개선방법 등을 다룬 '책에도 구타하고 책에도 구타하고' △총학생회 사업진행소식 등이 실려있다.

특히 1면에는 북한의 함흥시 학생위원회 여학생들이 보낸 편지가 실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편지는 대동제때 총학생회에서 범청학원을 통해 보냈던 편지에 대해 보내는 답장으로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앞에 우리 녀학우들도 단결된 힘으로 분렬주의 세력들과 단단히 맞서 나가자 할 것"이라며 "우리 손으로 부강한 통일조국을 수립해 나가자"는 내용이다.

특히 1면에는 북한의 함흥시 학생위원회 여학생들이 보낸 편지가 실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편지는 대동제때 총학생회에서 범청학원을 통해 보냈던 편지에 대해 보내는 답장으로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앞에 우리 녀학우들도 단결된 힘으로 분렬주의 세력들과 단단히 맞서 나가자 할 것"이라며 "우리 손으로 부강한 통일조국을 수립해 나가자"는 내용이다.



○...작성합니다!

여보시오. 학원님들, 내 얘기 좀 들 여보시오.

학생회관이 개관된지 채 한달도 안됐는데 3층에 있는 커피자동판매기가 부서지지가 하면, 1층로비에 있던 화분은 깨어지고 심어져있던 나무는 내 동명이 처져 있는데 학생회관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한 두해 쓰고 말 건물도 아니면서 이렇게 험하게 사용해서야 되겠소. 아 참마다 후생과 직원들이 학생회관을 둘러보며 찢어진 자보를 떼어내고 흐트러진 의자를 정돈하는 모습을 보며 뭐 느끼는 것 없소?

○...돈이 문제가 아니.

총동창회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다기에 알아보니.

지난해 동창회헌회비를 낸 동문은 총 동문 1만8천9백60명중 1.96%에 해당하는 3백71명밖에 안된다고.

동문선배님들. 동창회의 발전은 곧 모교의 발전이고 모교의 발전은 곧 자신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동창회헌회비 납부에 적극 참여해 주셔요. 그래야 저희 후배들도 더욱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대낮의 공식(?) 술잔치

○...물(?)떡을 일?

생명수가 죽음을 독촉한다면? 최근 제주도에 지하수오염설대가 그 심각성을 드러내어 도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 말했.

한경면 판포리에서는 주민들이 암발병 원인을 지하수오염에 두고 의의를 제기해, 제주도당국에서는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진상조사에 나서는가하면 일부 언론의 추측기사와 과대보도등으로 도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하간 조속히 진상조사가 이뤄지길 바라며, 심각해지는 지하수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듯.

○...대낮의 공식(?) 술잔치.

지난 9월17일 오후 '학생회관 생활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가 시청 각실에서 열려 학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그 회의의 뒷골이 짙었다는 후문.

이 회의의 뒷골이를 막걸리들을 마시며 대낮에 학생식당에서 했다 는 것.

누대에 물려줄 새학생회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생활수칙을 정하자는 의도는 가상하나 배식시간에 한쪽에서 술을 마시니, 회의 참석자들에게 한마디 묻고 싶다.

학생회관 생활수칙에 '대낮에 학생회관 내에서 술 마시지 말자'는 수칙을 정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02)528-0114

보람 하나로 이어온 눈높이사랑

눈높이 사랑의 시작—
키를 낮추고, 마음을 열고 눈높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대교의 눈높이 사랑은 이렇게 키를 낮추고,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어린이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CATV 어린이방송을
시작하며—
어린이 교육,교양,오락 등
이땅에 건강한
어린이문화를 뿌리 내립니다.

눈높이 수학, 영어, 국어 등 어린이
학습교재로 시작해 오직 어린이 교육의 외길을 걸은 지난 17년.

이제 대교가 이 땅에 밝고 건강한 어린이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1995년부터 CATV 어린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어린이 건강, 취미, 뉴스, 자연 다큐멘터리 등을 방송할 대교 CATV 어린이 방송은 그야말로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어린이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교육하는 어린이 중심의 방송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교육문화 기업을 향하여—

눈높이사랑, 눈높이 교육의 실천으로 어린이교육·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교육문화기업을 향한 대교의 노력은 설 틀이 없습니다. 수학영재 양성을 위한 전국수학올림피아드, 일선 교육 현장에서 눈높이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위한 눈높이 교육상, 아동문학상, 눈높이대학원 설치 등 대교는 사내·외적으로 어린이 교육·문화사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교의 어린이 교육·문화에 대한 노력은 교육, 출판, 컴퓨터, 유통, 어린이 CATV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교는 어린이를 위한 제1의 기업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책임지고 실천수행하는 어린이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대교의 사업부문

- 학습교재: 어린이 개개인에 맞는 눈높이에서 시작해 단계별로 사고력, 이해력을 키워주는 눈높이 학습교재
- 어린이 CATV: 건강한 어린이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학습, 교양, 오락 등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방송
- 출판, 컴퓨터, 유통: 마음의 양식이 되어주는 재미있고 알찬 내용의출판, 어린이를 위한 컴퓨터, 세계로 지향하는 유통산업
- 재단법인 대교문화: 기업경영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장학사업, 눈높이 교육상, 학습연구지원 사업 등

■ 새 총장에 거는 기대

과감한 의식개혁만이 구시대의 타성에 젖은 사고의 틀을 벗고 새로운 행동양식을 창출해 대학발전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며, 그것을 올바로 실행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21세기를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 대학교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당당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4년간 우리대학행정을 이끌어갈 제4대 총장 취임에 즈음하여 우리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임총장에게 거는 각계의 기대를 들어본다. (여운이 씀)

공약사항 이행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김창진

2000년대를 맞이하는 시기에 앞으로 4년동안 제주대학교의 살림을 도맡은 최고경영책임자로서의 高長權총장님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날 제주도의 발전이 제주대학교에서 움트기 시작했던 엄연한 사실에서 보듯이, 이제 모교가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에서 걸머져야 할 역할은 실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졸업생들이 우수한 인재로 양성되어 국내외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것을 소망하면서 몇가지 바람을 적어 봅니다.

첫째, 졸업생 취업의 심각성을 타개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확고한 대책이 수립되어 모두 취업이

되도록 졸업생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기 바랍니다.

둘째, 대학발전의 기금조성을 확충함으로써 연구실험시설 등의 현대화와 국제적인 학문연구·연구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우수한 교수로 양성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교직원들의 적정한 수요와 능력위주로 생산적이며 발전적인 경영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상 제주도의 발전적인 미래상은 곧 濟州大 교수·同門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희망찬 기대를 도민에게 심어줌으로써 濟州大의 권위와 위상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저렴한 경비로 심포지엄, 학술행사 등을 치를 수 있도록 국제적인 회의장·숙박시설을 校內에 갖추어 국제관광지대인 대학의 면모를 다져나간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高長權총장께서 총장후보시에 제시한 公約 사항들을 차질없이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그 추진에 총동원되는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드립니다. (총동원회장)

“책임있는 행정으로 과감한 개혁을”

의대신설계획 등 반드시 성사시키길



고태선

과거의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바뀌고 나서 두번째 맞이한 직선총장 취임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교 40주년을 넘긴 우리 제주대학교는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향상이 있었음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대학교가 “한국속의 대학”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총장님께서 후보당시의 공약사항, ①학내 구성원중 조용한 다수의 의견을 정책결정의 중심적 가치체계로 하고 ②교육 연구시설을 확충하고 ③교수 연구활동기금을 조성하고 ④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⑤일반행정과 학사행정을 개혁하고 ⑥교직원들의 후생복지 등을 위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통찰력과 실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총장님의 취임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전임자의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기 보다 전임자가 이루어 놓은 일, 하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한 일, 그리고 잘못된 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다듬고 바꾸고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제주도는 지역여건상 의료부문에 도민에 불편을 주는 지역입니다. 전국 각 시·도에는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으나 제주도에만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3차 진료기관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최근들어 이 문제에 제주도에만 거리가 공감을 형성하여 의과대학 설치의 당위성이 급증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같은 일이야말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제고화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대학은 교양과 인격을 도야하는 장이기에 우리 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발전하는 대학 ‘학문’을 탐구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더더욱 달라지는 학문의 전당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와 열성을 보였으면 합니다.

(학부형 제주여상 교사)

실질적 개혁 이뤄지도록 열심히 뛰는 총장돼야



김상조

들의 후생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다시 ‘1)민주적인 의사결정, 2)연구와 교수 중심의 학교운영, 3)지역사회와의 연계, 4)학 교구성원 복지의 향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우리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다. 얼마나 요긴하고 필요한 일인가. 또 여기에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신임 총장은 이 공약으로 가장 많은 교수들의 표를 얻었다. 나는 이것을 교수들의 동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선거가 별 건가. 선거는 후보자의 공약에 동의(후보자가 여럿일 때는 선택적 동의를)를 표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선거가 끝난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公約이 空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이다.

선거 공약이 100% 실천되는 세상이 있을까? 그리고 세상에 그것을 100%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이의 실천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뛰는 총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앞으로 대학은 여러 면에서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다. 벌써 지방국립대학의 사립화가 정부 당국자 입에서 나오고 있다. 앞으로 총장은 자리를 지키면서 결해 도장이나 찍어서는 난국을 극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난 학교신문에서 ‘신임 총장에게 바란다’는 이 글을 많은 교수들이 쓰지 않으려 한다고 하면서 교수들의 소신없음을 매도하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우리 학교 신문은 학교 당국이나 교수들 매도하는 데 대단히 용감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처럼 공포스런 글의 창작이 들고 들어 내에게까지 왔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나는 해도 괜찮을까. 망설임과 두려움으로 자문자답하면서 이 글을 쓴다.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건강한 대학 건설위해 다른의견 청취에 힘쓰길



임윤규

벌써 선출된 밤공기를 느끼며, 건물마다 소동되어 거의 철쭉같이 어두운(?) 교정을 내려간다. 밤 열시가 조금 넘으면 학교 정문은 으레 철책이 쳐져 있다. 인도로 아슬하게 곡에 운전하여 정문앞 로타리를 돌아보니, 한 두대 버스만이 서 있다.

대학가의 혼해빠진 복사집, 막걸리집 하나 없는, 다소 쓸쓸하기도 혹은 멋대거리 없어 보이는 교정을 뒤로 두고 집으로 향한다.

가는 도중 길 옆의 오행고등학교를 보니 교실마다 불아성...

‘저 어린 것들이 초저녁이면 불이 꺼지는 한적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밤도 모르고 불 밝히고 있구나’하는 애처로운 생각이 든다. ‘저 중에 필시 우리 대학에 입학할 학생도 다수 있을텐데, 그들이 우리 대학의 요요한 호수 밑바닥 같은 분위기를 접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

무릇, 대학의 본질이 학문의 탐구와 고매한 인격의 육성에 있다고 하겠거니와, 밤을 새워 이를 추구함에서부터 최고학부 대학의 멋이 우리나를 것이다. 유치원서부터 영어, 산수를 공부하며 그 학구열의 극치가 고등학교이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 이것으로 뼈를 깎는 고통을 참으며 공부하는 목표가 달성된 것이다. 일단 대학생이 되면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휴식이 필요하다. 좀 심할 정도의 휴식... 제동기 없는 자동차가 엔진 없는 자동차로 변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교육이 아닐까 하는 오해가 생길 법도 하다.

이제 새로운 ‘제주호’를 통솔하여 이끌어갈 새로운 선장, 신임총장의 취임에 맞았다. 신임총장께서 피력한 사항들은, 결론적으로 ‘우리 대학교가 대학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욕일 것이다.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니 안 아픈 손가락이 없더라 하는 우리 옛말이 있다.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불어 함께 발전할 때, 그것을 건강한 대학이라 칭한다. 올던 아이가 스스로 조종해지는 현상은 병이 깊어졌다는 표시인데, 자상한 아끼엄마의 눈길은 이러한 것을 간파하지 않는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으니 8천 여식들의 가정의 노심초사가 어찌 할까 짐작이 어렵지 않다.

인생의 긴 세월을 우리 대학에 몸 담으셨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자 하셨던 원로 교수님들의 고견과 또한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이 다른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여, 무거운 짐이라도 조금씩 나누어 지어, 우리 대학이 도민의 대학이 아닌 국민의 대학, 인류의 대학이 되는 길로 이끌었으면 한다.

(수익학과 조교수)

명확한 현실인식 바탕 일관된 대학행정 추진을

강의실을 분주히 오가는 학우들의 발걸음, 도서관·실험실에서 탐구에 열중하는 학우들,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학우들의 모습속에서 학원의 참 모습을 읽게 합니다. 이는 40여년 동안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교수·학생·교직원들의 노고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시점에서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학발전의 성과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학, 세계속의 대학으로 도약해야하는 과제인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수·학생·직원의 단결된 힘과 책임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대학 제4대 총장으로 선출, 임명되



신교중

신 교장권 총장님의 취임은 8천정년이라는 대의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개교 41주년, 이제 우리학교도 불혹의 노정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지금 우리학교의 모습을 세우내기 위한 수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학교도 이제 명실상부한 제주도민의 종합대학으로서 우

뚝 서 나갈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지금도 학교발전을 위하여 애쓰는 수많은 분들이 있기에 진리의 터, 민족대학으로서 거듭나는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뿌듯한 소견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학교의 질적인 발전으로 도약하는 이 시기에 총장님은 이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교수·학생·교직원의 총장님에 의하여 합니다. 학원의 주인은 교수·학생·교직원 모두입니다. 교수·학생·교직원들에게 자기의 위상을 명확히 해주고 책임성을 부여해 나가면서 이들 대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정책에 반영시켜나간다고 합니다.

둘째로, 제주대학교 문제와 현실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관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셋째는 제주도의 유일한 종합대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지역사회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교육환경 개선의 문제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강의실, 도서관의 수 용능력과 도서, 연구시설들은 대학발전의 핵심적 요건입니다.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있게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총장님만의 과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총장님의 올바른 정책 제시 속에서 교수·학생·교직원이 단결된 대학발전의 의지를 가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장)

해외 유학이 서울 유학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유학! 돈 많은 특권층에서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냐고요? 그러나 월드유학원을 찾은 순간 서울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싸게 해외유학을 다녀 올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거의 공짜로 어학연수, 해외여행, 외국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따~용



- ◆제대생 특별우대
- ◆외국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도 환영

도내 유일의 종합유학기관— TEL 57-9533~4
월드유학 자료원 (시청정문앞)
대표 오성국 (본교 81학번)

유 학 안 내

일 본

- 93년 10월 학기생 비자 100% 합격
- 아르바이트 상담
- 문부성 일본어 교육 지정교
- 완벽한 남·여 기숙사 시설
- 출국전 일본어 강의

호 주

- 저렴한 생활비, 무공해 환경
- 법적 20시간/주 아르바이트 허용 (7000~9000원/시간)
- 어학연수, 대학(원)진학 특별상담
- 호주항공학교(항공조종사 자격증 1년)

스위스 호텔경영학교

- 세계 최고의 호텔 경영자 양성교
- 관광계열 학교 출신자 편입가능

미국, 영국, 이태리 등

유학설명회

일본, 호주, 영국, 미국, 스위스호텔경영학교 등

본 원에서는 위 학교, 대사관 직원을 모시고 유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1993년 9월 25일(土) 오후2시
장소 : 제민일보사 4층강당(신제주 입구)

양질의사진을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17분 완성

3×5 100원

급속증명 5,000원

사진현상·인화
증명·여권촬영
사진학대
카메라 및 기자재 판매
흑백·슬라이드 현상
출장촬영

포 토 랜 드
PHOTO LAND

제주대학교 신학생회관 1층
TEL 57-3521
54-2583(구내)

◆그리스 여행기:역사발전의 순리와 역리 (하)

영토의 자족성 결핍이
문명창조의 원동력 돼

계층간 세대간의 벽을 허물고 개인육구와 사회활동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활발한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결국 민주정치가 승리하게 마련인 것이다.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개인과 사회의 벽이 허물어지는 또 하나의 예를 나는 해수욕장에서 확인하였다. 지중해 연안에 나체 해수욕장이 있다는 말을 그 전부터 들었지만 그리스 섬 지방의 그것은 말로 전해들던 것과는 다른 것 같았다. 그 전에 들던 나체촌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경계선도 있고, 그 속에 들어가면 무슨 규칙 같은 것도 있다고 했지만, 내가 그리스의 뮈코노스섬 파라다이스 비치에서 보았던 해수욕장은 출입하는 것도 자유롭고 그 속에서의 복장 상태도 가지각색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든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틈틈이 혹은 완전나체의 남녀들은 유유자적 편안한 자세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 시대의 변화나 도자기 그림 가운데에는 사랑하는 남녀의 나체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예술작품들이 생산된 그리스의 고대사는 틈틈이 수영객들의 발가벗은 모습을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이름 아래 정당화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의 낙천적인 향락주의는 결국 자유주의 휴머니즘에 연유하는 성 싶다.

빈약한 자연환경과 사회적인 불안정 속에서 경제가 낙후되는 것은 역사의 順理이겠지만, 가난한 살림살이에서 낙천적인 향락주의자가 나오는 것은 역사의 逆理(아 이러니)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경제적인 발전을 위한 욕망이 사람에게는 마땅히 근면 검소 절약하여 그들의 불리한 처지를 극복하려 할 것이고, 풍요로운 삶의 기회를 봉쇄당한 사회는 교육과 자재의 오랜 강요에 의해 우울한 염세기를

놓을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가난한 그리스인들이 퇴행적인 봉건적 압박의 방향으로 그들의 궁핍한 환경에 적응하려 하지 않고, 마치 풍요로운 사회에서인양 인생의 향락에 열정적일 수 있는 아이러니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러나 경제사회적인 궁핍성이라는 한가지 원인만을 염두에 둘 때에는 낙천적인 향락주의라는 결과와 역사의 역리처럼 보이겠지만, 현상적인 결과를 일차적인 고려사항으로 삼았을 때에 그 원인을 추적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이에 관련하여 흔히 거론되는 것이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이다.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등 지중해 연안 국가 사람들이 모두 그런 것을 보면, 본능해방적인 자유를 구가하는 그리스인들의 향락주의도 온난하고 쾌적한 지중해성 기후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경제사회적인 역경과의 관계에서는 역사의 아이러니처럼 보였던 그리스적인 향락주의도 기후적인 요인에 의한 자연스러운 인과관계, 즉 역사의 순리라고 설명이 가능해진다.

진정으로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은 척박한 땅위에서 이루어진 고대 그리스의 웅대한 문명이라 할 것이다. 일찍이 역사가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역사의 아이러니에 대하여 주목한 바 있다. 위대한 역사가 창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생활에 유리한 임지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생활 조건을 받음으로써 비록 고대 그리스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위대한 역사가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이 토인비의 이론이며, 고대문명의 발생지인 황하유역, 인더스 및 갠지스강 유역, 나일강 유역, 메소포타미아 지방 등은 이 이론의 입증 사례이다. 이들 지역은 그 비옥한 토양에도 불구하고 홍수와 가뭄 등 자연

개신간

『우리 학문의 길』조동일 지음

선진국의 학문을 수입하는 데 중점을 두어 생긴 우리나라 학문의 창성의 결핍과 여러 학문에 관한 문제점을 논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학문의 나아갈 바를 제시한 『우리 학문의 길』이 지식산업사에서 발간됐다.

우리 학문을 잘못 이끌어 온 그릇된 사고방식, 부적절한 제도와 관행, 무책임한 처방, 여기서 논의를 비판하고 바른 길을 찾는 논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 책은 △제1장: 우리 학문의 고민 △제2장: 우리 학문의 위상 △제3장: 우리 학문의 각성 △제4장: 우리 학

문의 과제 △제5장: 우리 학문의 성과 등 모두 5장으로 구성됐다.

『정소리』문순태 지음

처음 발표되자마자 여러 비평가와 독자들로부터 상당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정소리』는 그 후 삼년여에 걸쳐 연작소설 형태를 취하면서 작가 문순태의 민족작가적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알려져 왔다. 이 연작장편 『정소리』가 천지서관을 통해 발간됐다.

문순태 연작소설 『정소리』는 인간적인 고향찾기를 단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진솔한 울림이며, 그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오랫동안 감동으로 읽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통일운동 완결 민중이 주도해야”

문익환목사 '95년 통일은 가능한가' 강연

‘95년 통일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문익환목사 초청강연이 인문대학생회(회장 김지용, 독문 3) 주최 ‘진양제전’의 일환으로 지난 9월21일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있었다.

4백여명의 학우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초청강연에서 문목사는 “내가 말하는 95년의 통일이란 반세기동안 심화된 남과 북의 문제를 서로 논의하는 단계인 연합정부를 말한다”며 “지금까지의 통일운동이 민중에 의해 주도돼 왔던만큼 통일운동의 완결 역시 민중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목사는 또 “자유와 평등이 조화되는 통일을 완결하는 것이 우리 민중이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자재의 도전이 인간의 응전으로서의 문명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이며, 미국의 응성 또한 신대륙 개척의 어려움이라는 도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공통되는 것은 위대한 문명창조가 비옥하고 광대한 평야와 풍부한 자연자원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대 그리스의 경우는 다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비옥한 평야도 없고 별다른 자연자원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 밖으로 진출하여 식민지 개척을 하고 해외교역을 함으로써 국부를 쌓았던 것이다. 더구나, 고대문명의 다른 발생지에서 는 그 영토 자체의 자급자족성 때문에 사상의 停滯性과 체제의 硬直性을 탈피하지 못했는 데에 비하여, 고대 그리스의 경우에는 영토 자체의 자족성 결핍이 오히려 사상의 개방성과 체제의 유연성을 낳았다. 만약에 그리스의 국토가 비옥했더라면 이 민족은 자기들이 자리잡은 땅을 경작하는데에 만족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해외진출의 꿈을 꾸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민족이 해외교역을 통하여 동그곳의 발달된 선진문명을 도입함으로써 정신적인 시야를 확대하여 정체적인 권위주의를 불식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치와 사상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서도 유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원래 연애론 잘 쓰기에는 연애 못해 본 사람이 상수이고, 역사철해 오랫동안 강독으로 읽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20일 간의 막대한 시일과 자금을 바쳤고, 또 지금 이렇게 그네들의 역사 발전이 순리나 역리나를 물으면서 고심하는 것도 우리 역사가 그네들 것보다 못한 탓인 것 같아서 갑자기 씁쓸해 지는 심정이다. (끝)

양영수 영어교육과 부교수

과.학.이.야.기

로봇의 역사

요즘 정보화 사회라는 말에 익숙치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 열리고 있는 엑스포를 통하여도 실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컴퓨터·전자·기계 등의 첨단기술 덕택이다. 그중 첨단기술의 창조물로서 로봇은 주목할 만하다.

로봇은 인간을 대신한다는 개념에서 기원전의 신화나 전설 중에 종종 등장하고 있고 현대의 SF에는 필히 등장되고 있다. 로봇의 탄생은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으며, 이제 미래의 사회는 인간을 대신하는 로봇이 작업을 대신하는 사회가 되리라 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로봇의 역사를 알아 보는 것도 미래의 정보화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 하리라 본다.

최초의 로봇은 기원전 3세기에 기록된 인조인간 ‘철동인간 타로스’이다. 다음의 것은 주문을 외우면 나타나는 ‘거인 괴물’이다. 이와같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인조물체의 꿈은 기구나 기계장치에 대한 흥미와 합쳐져

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박카스 신전’이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졌다. 계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13세기에 주간에 날개를 펼쳐 시간을 알려주는 ‘날개 가진 학’, 15세기에 일출과 동시에 음을 발생하는 ‘에티오피아 왕의 상’ 등이 만들어졌다. 그외 ‘보카손의 에발’, ‘도로스 부자의 자동인형’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무사시대의 설화집에 처음 기계장치인형이 등장하고江戸시대 초기에 ‘竹田의 座’라는 자동인형이 등장한다.

실제 로봇이라고 하는 말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작가 차페이 최초로 만든 언어로서 1920년에 희곡 ‘R.U.R.’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Rossum's Universal Robot)이것은 체코의 ‘노동’을 의미하는 Robota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희곡은 여러가지 작업을 하는 데 인간보다 일을 더 잘하나 인간적 감정이나 혼을 가지지 않는 로봇이라는 인조인간을 등장시켜서 노동자나 군인의 일을 시키면서 인간이 지배하면서 번영하는 사회를 나타내지만, 로봇들이 우월한 능력을

인간보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등한 경우를 받지 못해 창조주의 인간을 말살시키는 비극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장래의 기계문명 사회에서 기계 대 인간의 관계를 예견한 것으로서 평가된다. 이후 로봇이라는 말이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 희곡이 발표된 7년후 로봇의 제 1호인 ‘텔레폭스’가 미국의 웨스팅 하우스사의 기사 웨스턴에 의해 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1928년 ‘夢天則’이 제작되었다. 이것은 모터가 동력으로 사용되며 손이나 머리의 움직임, 표정의 변화도 나타내고 있어 실제의 로봇 1호라 평가되고 있다.

로봇의 역사에서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역할도 크다. 실제 일본에서의 ‘철완 아톰’, ‘철인 28호’ 등은 일본의 로봇 산업에 인간의 친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로봇의 변성기를 누리고 있는 심리적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김장형 정보공학과부교수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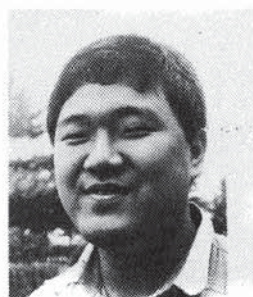
7년만에 재입학한 황인호씨

“신입생 된 기분으로 모든일에 최선을”

황인호(국문 84학번, 30살)씨는 지난 3월 발표된 교육부의 ‘제적학생 재입학 방침’에 따라 이번 2학기부터 2학년으로 다시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수년동안 얼굴에 육중한 체구만큼이나 편안한 웃음을 내보이는 그는 “제적된후 7년동안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내 지식의 폭넓음과 대학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인간관계 면에 대한 부족함을 크게 느꼈고, 주위에서 지켜보는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위해 이번 기회에 재입학을 결심하게 됐다”며 늦은감이 있지만 신입생이 된 기분으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86년 11월 차기 인문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지 10여일만에 총장실 접견 사건 첫 선거유인물



배포사건에 관련 제적당했던 그는 그후 민정당사 화염병투척사건에 연루 7개월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고 나서 87년 9월 재입학했으나 ‘어용총장 퇴진’ 등을 요구하다 타의에 의해 학교를 떠나야 했었다. 88년 4월에는 총선투쟁과 관련 다시 투옥되기도 했다.

현재 연동에서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는 그는 “막상 등록하고

보니 회사일과 대학생활을 동시에 잘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다소 염려를 표하기도.

요즘의 학생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질문에 “학원이 과도기적 분위기에 놓여있는 것 같다”고 전제, “학생회 간부들이 보이지 않는 권위주의에 빠져 무엇을 해야할지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운동이 제역할을 못하는 듯하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한다.

학생회 사업에 대한 학우들의 무관심이 점점 늘고 있는 점에 대해 “학생회간부들이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까지 포용할 수 있는 덕을 쌓아야 한다. 더불어 학우들이 학생회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학생회간부들이 먼저 학우들을 찾아 다니려는 노력을 보

여야 한다”고 학생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다.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서 참성인의 덕목을 갖추는 데 힘쓰겠다”면서 “요즘 대학생들은 지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본 덕목(지, 덕, 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태로 사회에 진출해야 인정을 못받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며 “요즘 사회에서 외국어·컴퓨터·운전면허 정도는 대학 졸업생이 갖춰야할 필수조건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마지막으로 최근의 신세대 문화에 대한 질문에 “자기 창조력을 무시한 무조건적인 모방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가치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좋은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서태지와 아이들’도 좋아한다며 넉넉한 웃음을 보이는 그에게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의 1인2역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감에 활기차게 생활하는 아라인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緣]

쥬쥬 Chou
서울 · 구로구 197-21
TEL : 850-6114 / 6117

■매장 OPEN 일정

■영남지역
부산 서면점 : 8/ 8 (051) 805-1341
부산 남포점 : 9월초 (051) 245-0232
부산 새남대점 : 9월초 (051) 556-9477
부산 문현점 : 9/ 4 (051) 557-4664
부산 다대포 임무소 소풍센터 : 9/ 10 (051) 266-0050

김해점 : 8/ 14 (0525) 36-0713
대구 중앙점 : 8/ 27 (053) 425-8506
대구 동아대점 : 9/ 10 (053) 252-2111
구미 동아대점 : 9/ 10 (0546) 455-2111
임원점 : 8/ 28 (0527) 354-9281
마산점 : 9/ 3 (0551) 21-3453
울산 모드니 백화점 : 9/ 7 (0522) 45-0018
충무점 : 8/ 14 (0557) 646-8505

■서울 · 경기 지역
영등포점 : 8/ 14 679-3023, 675-3752
강남점 : 8/ 12 667-8536
상계 건영점 : 8/ 19 978-5169
천호 해태점 : 8/ 20 442-8951
잠실 한양 스포점 : 9월초 420-0439
화랑점 : 10월초 464-6065
부평 현대 백화점 : 9월초 (032) 515-2854
성남 현대백화점 : 9/ 5 (0342) 730-1920
부평점 : 9/ 4 (032) 515-3993

■충북지역
대안점 : 9/ 11 (042) 254-9098

■호남지역
광주 호남 백화점 : 9/ 2 (062) 226-9411
목포 호남 백화점 : 9/ 5 (0631) 245-1101
호주점 : 9월 중순
군산 코스모스점 : 9/ 10 (0654) 466-4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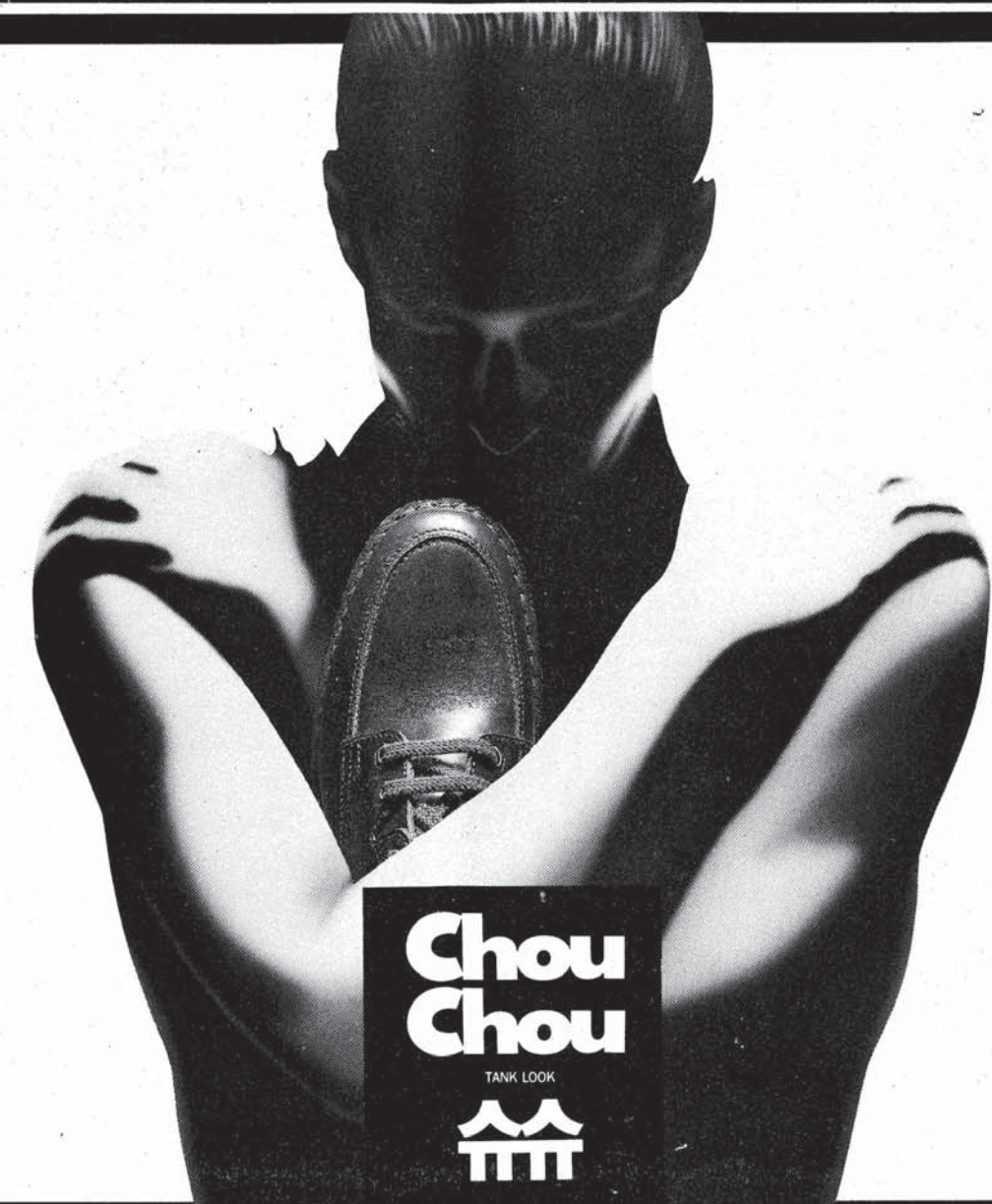
■제주지역
제주점 : 8/ 28 (064) 52-0922

■슈슈 멤버십 모집

1. 출품내용
슈탈리에(Chevalier), 슈슈(Chou), 세르메(Certe)
자매 브랜드들 Total 이미지로 형성할 수 있는 멤버십
2. 공모기간 : '93. 10. 20일까지
3. 응모자격 : 국내 대학, 대학원, 전문대 재학생
4. 수상작 발표 : '93. 10. 31 개별통보
5. 상 금 :
· 최우수작 - 1명 상금 일백만원
· 우수작 - 2명 상금 각 50만원
· 가 격 - 5명 슈슈 구두 1족
* 본인 희망시 당사 DESIGNER로 복제 가능
6. 접수처 :
· 우편번호 - 152-053
· 주 소 - 서울 구로구 구로 3동 197-21
· 문의처 - 850-6114 / 6117

쥬쥬 Chou
Chevalier Trend Casual

CASUAL 사업본부 : (02) 850-6114~6117



태어난다. 신 감각메신저
탱크룩 캐주얼화 - 슈슈

장학재단 재원에 토초세 부과 온제대가족 무원칙한 세무행정에 어안병병 철회 안할때... 조세저항운동 전개키로

우리대학교 장학재단의 주요 재원인 서암농원에 대해 제주세무서(서장 진병건)에서 1억2천4백40만9천5원의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를 부과함으로써 무원칙적인 세무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제주세무서는 '재단법인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이사장 고장권 총장)'에서 소유·운영하고 있는 서암농원을 수익용 자산으로 규정, 유류토지로 규정하고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를 초과해 상승률이 1753-2번지 1천2백6평의 과수원에 대해 토초세법을 적용시켰다.

이에 우리대학교에서는 지난 8월9일 고지전 심사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제주세무서측은 9월16일 서암농원이 수익사업용 토지임이 분명하다면서 심사청구를 기각시켰다.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토초세가 부과된 과수원의 과세개시일(90년 1월1일)지가는 3억9천8백30만원이고 과세종료일(92년12월31일)지가는 8억2천4백48만1천원으로 4억2천6백18만1천원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세무서에서는 토초세법 제9조 제1항과 3항을 근거로 이를 유류토지로 규정, 토초세법을 적용해 과수원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인 1억7천7백36만2천9백90원에 비해 2억4천8백81만8천10원의 초과이익이 있으므로, 초과이익상승분의 50%(1억2천4백40만9천5원)를 초과이익세로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맞서 우리대학교에서는 토초세법의 입법취지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문제의 과수



◇토초세부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암농원.

원이 유류토지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대학교에서는 당초 토초세법 제정시 법제처에서 판보(제11416호)를 통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는 지가상승이득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써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수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개인이 소유하는 유류토지 등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공공사업의 고수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며 비영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유류토지 여부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듯이 서암농원은 토초세법 적용대상의 토지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즉 토초세법 제1조에서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류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익을 조세로 환원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

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장학사업으로 이용되는 서암농원의 경우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에 토초세가 부과된 과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공공사업의 고수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고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도 아니므로, 대학당국에서는 토초세를 절대 낼 수 없다고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을 세웠다.

토초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지가상승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류토지 등은 그 법인의 고수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한다'며 유류토지를 설명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사업·자산사업·학술사업·기타 공익사업이 나 공익사업의 고수입무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류토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토초세법 제9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정관에 명시된 고수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고 토초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밝히고 있어 서암농원이 토초세법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우리대학교 장학재단의 고수입무는 토초세법 제9조 제2항 2호의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업무'와 3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는 규정에 부합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대학교 발전기금의 정관

에 의하면 △교육원의 교육·연구활동의 지원 △학생의 장학사업 △도서관, 실험실습 및 연구기자재 시설 등의 확충 △국내·외의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기타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고수입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금의 대부분이 장학사업과 교수연구비 등 우리대학교 발전기금의 고수입무에 직접 사용되는 서암농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술 및 공익사업용 토지이므로 토초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견해이다.

이외에도 우리대학교에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제2항 제5호와 법인세법 제2조 제1항(수익사업의 범위)및 제2항을 근거로 문제의 과수원이 재단법인의 고수입무를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토지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세무서에서 수익사업이란 이유로 고지전 심사청구서를 기각시킨 것에 대해 우리대학교에서는 토초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와 제37조를 제시해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관계 법조자들이 우리대학교 발전기금에서 소유·운영하는 토지가 유류토지가 아니라는 점과 고수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점, 수익사업을 위한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세무서에서 토초세법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대학교의 토지에 1억2천4백여만원의 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일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대학교에서는 자진 신고 및 납부(93.9.1~10.2)를 거부하고 11월경에 고지서가 발급되면 제주세무서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법적용의 부당성을 제기할 생각이고, 이의신청서가 기각될 경우에는 제주세무서의 상급관청인 부산국세청을 대상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을 세우는 등 강력대응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초세가 부과 논란이 일고 있는 과수원은 지난 83년 고 김여중씨가 우리대학교에 기증한 서암농원(갈굴과 수원)의 일부분 '제주대학교 장학회'에서 장학금등의 지원을 위해 운영해오다가 지난 3월 장학회가 발전기금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지금은 재단법인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에서 소유·운영하고 있다.

개편되기 전까지 우리대학교 장학회에서는 서암농원의 갈굴 관내수익금 등을 토대로 모두 4백41명에게 1억9천7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가을 축제 개막

금주말까지 학술행사및 놀이마당 열려

1학기학술행사들을 총화하고 소속학우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취지아래 각 단과대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와 대동봉이 개최되고 있다.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대학 노래경연·즉구경기 등을 계획하는 단과대 눈에 띄지만 올해도 학우들의 참여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대학을 단과대동봉이 기간에 동시에 개최하는 등 참여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대동봉은 그 본래의미를 되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전제적으로 초청강연이나 세미나등의 학술행사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점 또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각 단위별 축제 일정과 행사내용을 살펴본다.

◇동아리연합회 '93 동아리대동봉이' 동아리연합회(회장 송창민 농학4) '93 동아리대동봉이'가 오는 24일·25일 이틀동안 학생회관 앞에서 펼쳐진다.

분과대학 민속놀이 한마당, 대동봉이 등을 통해 동아리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행사가 진행된다.

◇총학생회 '93 아라리성대동봉이' 총학생회(회장 김관영 화학4) '93아라리성대동봉이'가 21일부터 23일까지 학생회관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행사가간동안 학생회관 앞마당에 통일거리, 여성해방의 거리, 성폭력적결의의 거리를 마

련해 관련자료를 전시하고, 성폭력적결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의 장이 마련돼 있다.

◇인문대 '진인인 대동봉이' 인문대학생회(회장 김지용 독어독문 3)에서 주최하는 '진인인대동봉이'는 20일·21일 이틀동안 학생회관 앞에서 열렸다.

통일퀴즈, 통일전시, 문학환복사 초청강연 '95년 통일가능성과 우리의 과제'등 통일문제에 대한 행사중심으로 개최됐다.

◇경상대 '씨울대동봉이' 경상대학생회(회장 정경만 경영4)에서 주최하는 '씨울대동봉이'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경상대 곳곳에서 펼쳐진다.

'금융실명제에 관한 5개학과 연합학술 세미나, 회계학과 마당극 '금융실명제와 재산공개', 통일즉구대회 등 학술행사와 체육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법정대 '한라청맥제' 법정대학생회(회장 현국봉 행정4)에서 주최하는 '한라청맥제'는 21일부터 23일까지 법정대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다.

단과대학기간에 행정학과 모의국회의와 법학과 모의재판-작가표현의 침해와 형법 제244조의 관계 등 과목제도 함께 열리게 된다.

◇사범대 '사목대동봉이' 사범대학생회(회장 이영훈 국교4)에서 주최하는 '사목대동봉이'는 지난 20일 시작돼 23

일까지 사범대주변과 소문동장·대운동장 등에서 펼쳐지고 있다.

◇노래패와 율동패가 함께 준비한 참고육서곡을 시작으로 임용제도의 비민주성을 내용으로 한 놀이패 공연의 마당극 '성'은 노요 이름은 임용이라'등 학교육에 대한 행사들과 체육대회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양대 '해양제' 해양과학대학생회(회장 홍진형 중식4)에서 주최하는 '해양제'는 23일·24일 이틀동안 야외음악당 및 해양과학대주변에서 펼쳐진다.

취업정보센터인 육서당에 근무하는 한유용씨를 초청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양가요제, 통일퀴즈한마당 등을 개최한다.

◇자연대 '연광축전' 자연대학생회(회장 이창희 수학4)에서 주최하는 '1천인이 하나되는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 제5회 연광축전'은 지난 20일 시작돼 23일까지 자연대학주변에서 계속된다.

학원자주화와 자주교류에 대한 취지, 연광가요제, 협동점박질 등으로 구성됐는데 23일은 과대학의 날로 자연대 모든 학과의 축제가 열리게 된다.

◇공대 '여울제' 공과대학생회(회장 정창현 정보공4)에서 주최하는 '여울제'는 24일·25일 이틀간 공과대주변에서 열린다.

노래한마당, 게임부패 등 공대인의 단합을 위한 행사중심으로 진행된다.

◇아간강좌부 '야학제' 아간강좌부학생회(회장 고병철 법3)에서 주최하는 '야학제'는 23일부터 25일까지 법정대와 경상대주변에서 열린다. 노래운동 한마당, 공동체놀이 등 학우들이 어우러지는 자리가 마련돼 있고 마지막날에는 과대학이 열리게 된다.

본지 9월14일자 3면 △도색공사 관련기사 중 '김영권시설과장'을 '김병호시설과장'으로, △부직업선 관련기사 중 '참석학생수'를 '총 2명'이 아닌 '각 단과대학별 2명'으로 각각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같은 면 대학안내판교체에 대한 기사중 안내판의 모형은 돌라바람의 머리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디자인한 모형을 알려드립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들의 차

차주들은 누구인가

누구나 한번쯤은 아무데나 너털너털하게 붙여진 대자보·알림글 등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려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너털분하게 붙여진 대자보·알림글에도 변명은 있다. "계시관이 모자라서..." 라는.

그런데, 요즘은 이 계시관 부족문제보다 계시관 활용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신속학생회관 동쪽과 중앙

도서관 입구 동쪽 등에 설치된 계시관들이 주차해 놓은 각종 차량들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속학생회관에 설치돼 있는 야외계시관의 경우, 학생회관 근무직원 및 각 매장 입대자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들로 인해 계시관이 아예 가려져 버리고 있다.

계시관 주변에 주차를 금지시키든가, 아예 계시관자리를 다른 적당한 곳으로 옮김으로써 비싼 돈 들여 설치



◇신속학생회관 동쪽에 설치된 계시관이 주차해 놓은 차량들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한 계시관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주차금지 시

키는 것 보다는 계시관을 학생회관 진입로 쪽으로 이동해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春)

痛大漫評



어느 것 먼저...

천리안이 신세대에게 드리는 가장 저렴한 서비스 - 천리안POP

“지금 천리안POP의 세계로 오십시오”



신세대는 팽방이인, 하바드 박사도 부럽잖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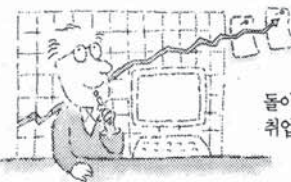
시간과 돈을 절약하면서, 다양한 이성친구를 사귄 수 있다



야구, 축구, 볼링에서 바둑까지 - 스포츠 레저상식의 스타가 된다



문화예술에서 시사정보까지 - 정보백만인 소릴 듣는다



돌아다니지 않고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정보가 많다



신세대는 미래파, PC철학자로 사주·운명·궁합도 본다

10월 1일부터 01420으로, 전국 어디서나 시내전화요금으로 천리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잡다다 신세대 일까요? 제할일 잘하고, 친구도 다양하고 취미도 즐긴다 알고, 정보도 환~해야죠. 신세대에 꼭 필요한 종합정보서비스, 천리안 팝! 천리안 팝은 월정액 6천원만으로 PC통신과 정보 서비스를 요금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종합정보서비스입니다. 천리안POP! 지금 신청하십시오!

“무료서비스인 GUEST를 이용해보세요”

천리안서비스중 공개서비스(생활 및 공공정보)를 GUEST ID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리안 팝이란? PC통신을 즐기는 신세대를 위해 국내 최고의 종합정보서비스 천리안에서 주요 통신기능과 일상생활정보를 엄선하여 제공하는 가장 저렴한 서비스입니다.

■천리안 서비스란? 데이터의 종합정보서비스로서 키보드만 누르면 각종의 다양한 정보이용과 대화, 토론, 동호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최대의 서비스입니다.

*PC통신: 250여종의 통신서비스 *정보이용: 900여종의 데이터베이스

■신청방법: 모뎀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데이터 기사와 지정점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요금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데이콤

데이콤 종합안내센터 (02)220-0220
080-023-0220 (데이콤 요금부담전화)

이용원 표시등 학생회관 미관 해쳐

빨래도 옥상서 말렸으면

새 학생회관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부터 공간배치문제 등이 여러 차례 『제대신문』에 실렸었고 개관한 후에도 사용상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기억한다.

너무 잦은 청산도 듣는 이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데 잘못된 점을 여러번 지적하는 것은 더욱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이며 어쩌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음을 잘 안다. 그러나 학생회관에 대해 갖는 특별한 애정과 관심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글을 읽어줬으면 한다.

교문에서 도서관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우리의 보금자리인 학생회관이 멋있게 자리잡고 있어 뿌듯함까지 느낀다. 그러나 인문대를 향해 걸어다가보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인다.

첫째, 이용원을 나타내는 표시등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학생회관을 이용해 본 학생이라면 누구나 2층에 이용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이상으로 큰 표시등을 매단 것은 홍보의 의미를 벗어나 “과대 광고가 아니냐”는 소리도 있고 “외부인이 보면 학생회관 전부가 이용원인줄 알겠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이

용자들이 이용원의 위치를 잘 알고 있으므로 표시등은 작은 것으로 내부에 매달아야 마땅하리라 생각한다.

둘째, 이용원과 미용실에서 쓰고 난 수건을 말리는 데 따른 문제이다. 이용원인 경우는 창에 작은 건조대를 미용실에서는 건물의 뒷문 쪽에 건조대를 설치해 수건을 말리고 있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러는 것 같지만 지나가며 그 모습을 보는 학우들은 불만이 많다. 이용원과 미용실 측에서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옥상에 건조대를 설치하고 수건을 널어두는 것이 빨리 마르기도 하고 미관상 좋을 듯 싶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픈 점은 학생회관 광장 옆에 주차장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심히 그곳을 지

나가는 학우들은 차의 경적소리와 갑작스런 후진으로 놀랄 때가 있다. 당초 주차장으로 만든 공간이 아니라면, 시급히 다른 공간을 이용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학생회관의 문제들이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도록 학생과, 학생회, 임대업자 모두가 힘써주기 바란다.

(강현주 독어독문학과)

휴게실 남녀구분 필요한가

금연·흡연 구역으로 구분이 타당

여학생휴게실과 휴게실의 분리, 텀빈 여학생휴게실과 객관 휴게실, 지난 학기에 휴게실 문제를 누군가가 투고한 기사를 제대신문에서 보았다. 당시 마음에 담고있던 문제이고 공감하던 차에 신축학생회

관에 들어가게 될 여러 시설을 보게 되었다.

미용실, 식당, 많은 동아리방, 매점 등 그중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휴게실이었다. 관찰했거나하고 생각했던 나의 기대는 신축학

독자의소리

‘독자의 소리’는 학내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 요소의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 모순된 사회를 고발하는 가슴 뜨거운 목소리, 제대신문 기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담은 독자들의 참여공간입니다. 항상 열린 지면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회관이 문을 열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구학생회관과 다를 바 없는 여학생휴게실과 남학생휴게실의 구분. 분명히 팔팔레트는 달랐다. 솔직히 휴게실 이용에 대해 여학우들은 아무런 불편도 없을 것이다. 아무곳이나 마음껏 출입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남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객관 휴게실에 얼굴을 찡그러 보지만 드문드문 자리가 빈 여학생 휴게실은 엄두도 낼 수 없다.

남녀평등이라—그렇다면 말도 안되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남자의 권리는? 차라리 그러한 구분보다 흡연휴게실과 금연휴게실이라는 구분이 더욱 실질적이고 타당하지 않을까. 객관 휴게실에 얼굴을 찡그러 보지만 드문드문 자리가 빈 여학생 휴게실은 엄두도 낼 수 없다.

(오정석 중식학과)

중을 위해서였다. 대량생산 등으로 재고품처리만으로도 진땀을 빼야 하는 자본주의식 사고방식으로는 최지배인의 노력이 이해가 안될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인간본연의 양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고 보면 인민을 위해 노력하는 최지배인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 일인간성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소설은 북한소설이다. 따라서 읽다보면 여러가지 점이 눈에 띈다. 식료품이 모자란대거나, 연료가 모자란대거나 하는 등등이다. 이것이 연료부족이나 식료품 부족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우리 방송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듯하다. 모자란 것은 기호품 즉 술, 사탕, 과자 등이 필수품이 모자란다는 언급은 없고 모자란 연료로도 계속 재품을 생산해내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보면 어디쯤쯤 접지기도 한다.

북한은 아직 우리에게 금단의 땅이니 직접 가보기 전에는 아무도 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해야하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한다. 북한소설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그러한 노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잃어버린 우리 반쪽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통일 1세대가 해야할 작은 의무이다.

(조경인 해양환경공학과)

無論有說

아름다운 삶과 인간

영화 ‘서편제’를 본 사람은 알 것이다. 통산으로 잡은 화면 가득 터질듯이 안겨 오는 우리네 산하의 그 황홀빛 아름다움을. 허락하는 일상의 삶에 아무리 미적 감수성이 메마르고 무디어졌다 하더라도 한 소리꾼 일가의 떠돌이 삶을 따라 제각기 다른 빛깔과 형상으로 펼쳐지는 그 질박한 아름다움에 누구나 짧은 탄성을 금할 수 없었으리라. 더군다나 영화의 후반부에 자욱히 눈발 휘날리는 소리때에서 피끓는 소리를 토하는 여주인공 오정혜의 모습에선 어떤 비장한 아름다움마저 느끼지 않았으랴.

열은 새벽안개에 휩싸인 인적 없는 시골의 텅빈 들녘에 홀로 서 본 일이 있는가. 그때 싸아하게 가슴에 젖어오르는 그 까닭 모를 처연한 아름다움은 무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일출봉의 해돋이 한 잔의 술에 취해 시나브로 스러지는 사라봉의 저녁노을을 망연히 바라보는, 그 전율할 줄거움을 또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러나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도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진하게 울리는 것은 인간의 아름다움이다. 고결한 품성으로 못독자들의 심금을 울린 소설 속의 주인공은 많다. 요산(樂山)김정환의 『수라도』에 나오는 가야부인도 그 중의 하나다. 삼대에 걸쳐 의병과 독립군이 나온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묵묵히 남편이 없는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김현준

가야부인. 밤중에 몰래 숨어든 독립군 남편에게 반지를 빼어 주며 집안걱정을 하지 말라며 당부하던 모습하며 학교에서 늦그릇 공출을 강요당해 제기로 쓰던 늦춤패를 갖다 바친 아이에게 준열히 매를 들고 민족의식을 깨우치는 주인공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다. 이 소설의 작가인 요산선생의 삶 자체가 그러하다. 일제말 내노라는 술한 인사가들이 친일과 변절로 날을 새고 곡학아세하던 그 즈음, “불의에 타협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것이 못된다”며 감연히 붓을 쥐지 않았던가.

소시민적 안락함을 굳이 마다하고 20대를 온통 민주화운동으로 불꽃 같은 삶을 살다, 백혈병에 걸려 못다 피운 젊음의 꿈과 이상을 못내 아쉬워하며 담담하게 임종을 맞이한 한 여성의 삶 또한 눈물겹도록, 처절하도록 아름답다.

4·19때 동료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경부대를 향해 뛰어가다 적선동에서 경찰의 총탄에 맞아 병원에 후송된 뒤, 열 병상에 누인 고등학생에게 먼저 수혈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흘리다 죽어간 대학생 김치호. 그의 삶은 죽음으로써 삶을 완성한, 비할 바 없는 아름다운 삶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을 얻기 위해 땀흘려 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도 더없이 아름답다. 늦은 시각,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기인 그림자를 끌며 교정을 나서는 무거운 가방을 든 처진 어깨의 뒷모습. 잔디밭에 둘러앉아 진지하게 토론하고 맑은 마음으로 노래하는 젊은이들의 해맑은 모습이나 이웃의 아픔에 한줄기 눈물을 감아 흘릴 수 있는 젊은이의 따뜻한 심성은 건강한 아름다움이다.

그러나 요란한 옷차림에 부모가 사준 비싼 승용차로 교내를 질주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나 교과서 외엔 책이라곤 한 줄 읽지 않고 어젯밤 연속극의 줄거리에 열을 올리는 젊은이들의 모습엔 정말 불쌍 사나운 추함을 느낀다. 그리고 감방에서 국회의 증언석에 불려나와 추궁하는 국회의원에게 되래 ‘좌경공공 세력’이라고 호통치는 역악한 권력자의 모습은 추하다 못해 서글픈 분노마저 자아낸다.

이 가을엔 생활에 찌든 가슴을 씻고 아름다운 자연을 한껏 호흡하자. 아름다운 자신의 삶을 찾는 생활의 시간을 갖자. 그것이 곧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가장 인간적인 몸짓이다.

독어독문학과 전일강사

독자서평

백남룡의 『60년후』를 읽고

식품공장 노지배인의 건강한 삶 그려

대학가에서는 한때 백남룡씨의 소설 『뱀』이 인기를 누렸던 적이 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북한 사회의 결혼-이혼 문제가 다루어졌다는 점에서도 흥미가 있지만 한참 계속되던 “북한바로알기운동”의 일환으로도 느껴진다.

어쨌든 이후 백남룡씨의 다른 소설 『60년후』 역시 인기리에 출간됐다. 그 내용은 은퇴를 앞둔 곡산공장(식품가공공장) 지배인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60년

을 보낸 노 지배인이 앞으로 60년을 보낼 뒷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삶이라는 메시지는 이념과 체제에 상관하지 않고 남북평화에 살고 있는 나에게는 조그마한 흥분을 주고 있다. 이미 신물이 나도록 겪은 교과서적 이야기속에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조그마한 흥분과 감동은 곧이어 사회에 나아가 자신을 개척해야하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사실 우리는 좁은 선배들을 평가할 때 그 선배가 직장을 찾았는지 직장을 찾았다면 어떤 종류의 직장인지 등을 따져본다. 대학 시절에 가졌던 이상 등은 캠퍼스의 낭만으로 날려 버리고 자신의 현실에 매몰돼 버리는 게 다반사이다. 그러나 이 소설속의 최현필 지배인은 일주일 남은 자신의 일기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계획을 짜고 직장들을 다다려댄다.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 직장을 끊임없이 깨우친다. 여기서 최지배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점에 왔다가 물건이 다 떨어져 그냥 돌아가는 인민 즉 소비재 대

독자만평



고윤산 (국어국문학과)

권하고 싶은 책

『세계경제전쟁』 레스터 써로 지음



요즈음 서점가에는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종류의 서적류들이 출판 전시되어 독자들에게 광범위한 책의 선택지회를 갖도록 한다는 것은 어쩌면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독자의 기호가 주어질 때면 책의 선택 또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책을 권하는 입장에 있는 이는 독자의 공통분모를 찾기가 그

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번 주에 권하고 싶은 책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으면서 현실적으로 표면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시사성 있는 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레스터 써로우(Lester C. Thurow)교수는 『제로-섬 사회(The Zero-Sum Society)』의 저자로서 경제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전세계에 널리 알려진 경제학자이며, 미국의 정강(政綱)이나 국가경제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책의 본래 표제는 Head to Head로 출판되었으나 이창근씨가 세계경제전쟁으로 번역한 책이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격동의 20세기를 맞이하여 미국 EC 일본의 삼두마차가 세계경제를 이끌 경제전력을 분석하고 21세기에는 첨단 산업분야에서 국가간의 첨예한 경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상대적인 개념에서

출발한다. 한 국가의 국제수지가 흑자이면 반드시 다른 한 국가가 적자로 시현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 심화현상을 어느 주역이 최소화시켜줄 수 있겠는가 최대관심사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주역은 누가 될 것인가? 세계교역질서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독자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특성은 어느 독자인데 추상적인 경제이론의 뒷받침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또 세계경제대국의 전력분석이 한국의 경제정책 입안자나 기업가 혹은 일반 시민들의 국제경제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많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춘 상업교육과 부교수

제주대학교 제4대 고장권총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 외국어 교육관 조감도



三格綜合建設株式會社

濟州道 濟州市 老衡洞 908-3
代表電話 46-0404